



## 올해 경북 중심 일부 이른 모내기 농가 중만생종 벼 이삭패는 시기 2~3주 빨라... '실제 이삭팔 때' 맞춰 영농 관리 필요

- 이른 이삭패는 시기에 맞춰 물관리, 이삭거름, 수확 시기 재조정해야

올해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벼 이삭패는 시기가 평년보다 2~3주 빠르게 나타났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관행적인 영농 일정이 아닌 벼가 실제로 이삭패 시기를 기준으로 물관리와 이삭거름, 수확 시기 등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 영주, 안동, 상주, 의성 등 북부 지역에서는 '일품', '미소진품', '백진주', '영호진미' 등 중만생종이 7월 25일부터 이삭이 패기 시작했다. 이는 평년 이삭패는 시기인 8월 13~15일보다 약 2~3주 빠른 것이다.

특히 4월 20일 이전에 파종했거나 5월 20일 이전에 모내기한 벼의 이삭패기가 빨랐는데, 생육 초기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생식생장으로의 전환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삭패는 시기가 달라지면 이후 영농작업 시기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올해처럼 같은 지역에서도 모내기 시기에 따라 이삭패는 시기 차이가 클 경우에는, 예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벼의 생육 상황을 확인해 영농 작업 시기를 정해야 한다.

△ 등숙기 물 걸러대기, 이삭패 후 30~40일에는 완전물떼기 실시= 이삭패 후 벼알이 여무는 등숙기에는 물을 계속 깊게 대기보다는 2~3cm 정도로 얇게 대고, 3일 물대기·2일 물떼기 방식으로 물 걸러대기를 실시해 뿌리의 활력을 유지한다. 완전히 물을 떼는 시기는 이삭패 후 30~40일이 알

따라서 실제 이삭패는 시기를 기준으로 물떼기를 실시한다. 수확을 서두르려고 물을 지나치게 일찍 빼면 벼알이 충분히 여물지 않아 수량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논인 경우, 이삭패기 10일 전 무렵인 감수분열기부터 이삭패는 시기까지는 벼가 수분 부족에 특히 민감한 시기이므로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감수분열기는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벼알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미 이삭패 논에는 추가 시비 자제= 이삭거름은 일반적으로 출수 15~25일 전에 주는 것이 알맞다. 이미 이삭패 논에는 관행적인 날짜에 맞춰 이삭거름이나 질소질 비료를 추가로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삭거름을 지나치게 늦게 주면 벼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 수확적기는 이삭패 후 적산온도와 익음 정도로 확인= 이삭패는 시기가 빨라지면 수확적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올해처럼 이삭패는 시기가 빨라져 등숙기 기온이 높은 경우 벼가 여우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날짜만으로 수확 시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확적기는 이삭패 후 일 평균기온을 합한 적산온도가 1,200℃ 전후에 도달했는지, 이삭의 벼알이 약 90% 이상 황색으로 익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올해 경북의 경우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이삭이 패 벼는 최근 5년 기온(2021~2025)을 기준으로 이삭패 후 약 45~50일이 수확적기로 예상된다. 수확시기가 너무 빠르면 청색 쌀이나 미숙한 쌀이 늘고, 지나치게 늦게 수확하면 금간 쌀 등이 증가해 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번 이른 이삭패는 시기는 지역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내는 시기 등에 따라 논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인근 논인 이삭패는 시기나 평년의 영농일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논에서 실제 이삭패 날짜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후 물관리와 수확 시기를 정해야 한다.

한편, 내년도 영농은 지역의 기상 여건과 적합한 품종, 적기 모내기를 준

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이른 이삭패는 시기 사례와 기상·생육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지역의 적정 모내는 시기를 추가로 분석하고, 2027년부터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생리과 김춘송 과장은 “올해는 같은 지역에서도 모내는 시기에 따라 이삭패는 시기가 크게 달라 영농일정을 관행대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며, “농가에서는 실제 이삭패는 시기를 기준으로 물관리하고 적산온도를 확인하여 적기 수확해서 벼알이 충분히 여물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이른 이삭패는 시기에 따른 영농 작업 안내

|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국립식량과학원<br>재배생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춘송 | (063-238-5290) |
|               |                                                                                                                                                            | 담당자 | 연구사 | 양서영 | (063-238-5323) |
| <공동>          | 농촌지원국<br>식량산업기술팀                                                                                                                                           | 책임자 | 팀 장 | 장재기 | (063-238-1495) |
|               |                                                                                                                                                            | 담당자 | 지도사 | 김동연 | (063-238-1497) |
|               | <div><div>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div><div>농업의 모든 것</div><div>농사로</div></div>  |     |     |     |                |



# 올해 달라진 벼 출수기, 영농작업 이렇게 하세요

평년 날짜보다 실제 출수기를 기준으로 관리



## 올해 출수기, 이렇게 달라졌어요

- 경북 일부 지역 중만생종 출수기 **최대 20일 조기화**
- **조기 이앙한 논**에서 조기 출수 두드러짐



1

### 이삭거름

- 이미 출수한 논은 추가 시비 자제
- 출수 15~25일 전 시비 (어린이삭 길이 약 1.5mm)



2

### 물 관리

- 출수 10일 전 ~ 출수기 : 깊게 물 대기
- 등숙기: 걸러대기 (3일 물 대기, 2일 물 떼기)
- 완전 물 떼기 : 출수 후 30~40일부터



3

### 적기 수확

실제 출수기 기준으로 수확시기 판단

- 출수 후 **적산온도 1,200°C** (출수 후 **45~50일**) \*평년 기준
- 벼알 90% 이상 황색일 때
- 너무 이르면 청미·미숙립 증가, 너무 늦으면 금간 쌀 증가



## 핵심



인근 논이나 평년 달력보다  
**내 논의 실제 출수기**를 확인해  
이삭거름, 물관리, 수확 시기를 조정하세요.